



2012 한국 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일본국제교류기금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CURRENT STATE OF JAPANESE STUDIES IN KOREA

■ 본 조사연구는 일본국제교류기금이 실시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일본연구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사업의 일환입니다.

본 조사연구는 일본국제교류기금과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의 공동조사연구에 의한 것이며,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진창수 소장이 총괄하였습니다.

본 조사연구는 2005년 이후의 한국에서의 일본연구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단, 분야에 따라 그 조사대상의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05년 이전의 연구조사는 《한국 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진창수 역임, 2007, 한울아카데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집필자 |

- 진창수 _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소장, 책임연구자
- 이면우 _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김도형 _ 동서대학교 객원교수
- 윤병남 _ 서강대학교 국제인문학부 일본문화전공교수
- 최 관 _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교수
- 최재철 _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대학 일본학부교수
- 이강민 _ 한양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부교수
- 한영혜 _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교수

제6장 한국의 일본근현대문학연구 현황과 과제

최재철 (한국외국어대학교)

1. 2005년 한국의 일본근현대문학 연구 동향 개관

1.1. 일본문학의 연구 동향 -2005년 현재-

먼저, 2005년에 조사한 한국의 일본문학 연구동향을 개괄해보고, 2012년의 일본근현대문학 연구 현황과 비교해보기로 한다. 1960년대의 일본문학 관련 논문은 7편, 1970년대 131편, 1980년대 이후 매년 증가하여 총 890편이었다. 이 중, 일본근대·현대 문학논문이 580 여편(약 65%)이고, 일본문학 연구자 총 630 여명 중 근현대문학 분야의 연구자수는 320 여명으로 50% 이상이었다.⁶³⁾

근대 작가로는 소오세키(漱石) · 아쿠타가와(芥川) · 오오가이(鷗外) · 토오송(藤村) · 다자이(太宰) · 카와바타(川端) 등에 관한 연구 논문이 많았으며, 국내 주요 6개 학회의 일본근현대문학 논문 총 280편중, 위 상위 5명의 작가 관련 논문이 40%를 차지하고 있다(2000년 5월)⁶⁴⁾. 문학사에서 지명도가 높은 작가에 대한 연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004년말까지 오오가이 연구의 경우에 연구논문은 50 여편, 연구자는 20명 정도이고, 소오세키 연구논문은 260 여편(논문 1편 이상 집필자 130 여명), 단행본은 11권이다. 카와바타 연구는 일반논문 150 여편, 석사논문은 65편으로, 작품론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의 통계 가운데, 근대 시가문학이나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동안 프로문학의 연구가 적었던 것은 한국의 남북문제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며, 아쿠타가와 류우노스케와 시마자키 토오송, 아리시마 타케오(有島武郎), 엔도오 슈우사쿠(遠藤周作)에 관한 논문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 기독교 인구가 많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문학 연구를 문화론과 관련짓는 방향의 연구가 늘어나고 있고 연구 방법론 등이 유학 출신대학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또한,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이지만 카와바타에 비해 오오에 켄자부로의 연구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것은 수상이후 시간이 많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것과 읽기 쉽지 않은 문장 때문일 것이다. 근대 시가문학 분야의 연구가 타쿠보쿠를 제외하면 수가 적은 가운데, 하기와라 사쿠타로(萩原朔太郎) · 타카무라 코오타로(高村光太郎) · 미요시 타츠지(三好達治) · 미야자와 켄지(宮澤賢治) · 마사오카 시키(正岡子規) 등의 시가문학 관련 논문이 서서히 늘어가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학회 편찬 일본문학 관련서적으로는 한국일본학회의 『일본연구총서』(전10권, 2001년) 중 「신 일본문학의 이해」 1권과 한국일어일문학회의 『일본문화총서』(전6권, 2003년) 중 일본문학 분야 2권(고전, 근현대 편) 등이 있다. 그리고 각 학회에서 주제별 연구로 기획도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63) 통계는 조사시기, 방법, 범위 선택 기준에 의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하 동일.

64) 다른 조사 통계는 소오세키, 아쿠타가와, 토오송, 카와바타, 다자이, 타쿠보쿠(啄木), 오오가이 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겠다(예, ‘일본문학 속의 여성’, ‘일본근현대문학과 연애’ 등).

이 밖에도 각 학회별로 총서 등을 간행하고 있는 바, 박사학위 논문을 단행본 형식으로 단순 제작하는 경우가 보이는데 학위논문과 단행본 저작은 성격이 다르므로 간행할 때는 그 체제 내용을 재정리하여 단행본으로서의 완성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일본에서 일본어로 쓴 학위논문을 그대로 한국에서 일본어로 출판하는 것은 너무 안이하고 의미가 반감되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한국어로 번역하여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 후 간행할 것이다.

전문 분야별·장르별 학회나 연구회의 활성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한국일본근대문학회’가 설립(1999년)되어, 전문분야의 학술지로서는 처음으로 『일본근대문학·연구와 비평』을 2002년 창간하여 연간으로 2005년에 제4호를 간행하였다. 그리고 주제별 학술세미나를 열고 특집(예, 일본근현대문학 속의 연애, 또는 가족 등)을 엮은 후 총서 출간을 기획하고 있다. 작가별 연구회로는 ‘나츠메 소오세키 문학 연구회’가 학술발표회와 단행본 간행(『나츠메 소오세키 문학연구』 창간호, 2001) 등의 실적이 있는 정도이며 그밖에는 아직 미미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움직임은 자연히 증가할 것이다. 한편, 주제별 연구회로는 ‘일본기독교문학연구회’가 활동 중에 있으며 단행본을 간행한 바 있다.

비교문학 분야에는 신화·설화나 고대가요, 근세소설의 한중일 비교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격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의 지속이 기대되며, 근대문학의 한일비교연구에 대해서는 이미 김윤식의 『한일문학의 관련양상』(1972)이래, 소오세키와 이광수, 아리시마 타케오와 김동인 또는 염상섭과의 영향관계의 비교문학적 연구나 대조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또한, 일본문학 속의 한국(인)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도 늘어나고 있고, 재일 한국인 문학, ‘일본어문학(日本語文學)’ 등에 관한 관심도 높아져 여러 연구 업적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분야의 연구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2. 일본문학 연구의 과제와 전망 –2005년 현재-

한국의 일본(문학)관련 학회로 대표적인 것은 한국일어일문학회와 한국일본학회 등이 있는데, 회원은 각각 약 1,000 여명씩(중복 다수)이다. 이 밖에도 일본관련 학회가 각 지역 또는 연고를 중심으로 하여 20여개 정도로 각기 학회지를 발간하고 있다. 대개 일본어 일본문학 일본학 연구가 중심이며, 그 체제와 목적이 대동소이한 이들 일본 관련 학회가 난립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일본관련 학회를 일본학(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일어일문학(일본어학 일본문화), 일본어교육, 일본사 등 3-4개 전공별로 통합하고 각 분야별, 각 지역별 지회(지부)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전공 분야별로 학회가 전문화되어 연구를 더욱 집중하고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예: 한국일본근대문학회 등). 유사한 학회의 난립은 회원(임원) 및 학회경비(회비) 중복은 물론, 학술 발표회 개최 및 학술지의 기획 주제 상호 반복 등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경비, 인적 물적 정신적 부담으로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하여 해결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한국의 일본문학연구는 일본의 경우와 비슷하게, 연구자가 일본문학사의 각 시대별 연구로 나뉘어 있고, 장르별 작가별로 연구자를 구별하려는 의식이 강하다. 연구방법도 문현학적·주석학적·실증적 방법론이 주로 동원되고 있다. 일본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연구자는 연구 자료나 참고문헌의 부족 등 국내의 미비한 연구 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일본고전문학 분야는 연구를 공유할 수 있는 일반 독자

와 학생이 적기 때문에, 일본의 연구방법론만으로는 쉽사리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국의 실정에 알맞은 방향을 설정하고 한국인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여, 텍스트 분석에 중점을 두면서도 각 시대와 장르 작가에 공통되는 주제의 연구 등이 필요하다. 특히 연구를 널리 공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전 작품명의 알기 쉬운 한글 번역 표기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인명과 지명 연호 실제 문화어(의식주) 등 고유명사의 한글 표기와 원어에 근접하면서도 한국의 경우에 가장 잘 대응되는 적절한 번역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한국의 일본문학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내의 선 행연구를 인지하고 섭렵하여 적절히 인용 및 비평을 할 필요성이 있다. 대표적인 일본 고전 및 명작을 전문 연구자가 적절한 주석과 해설을 완비하여 번역하는 것도 과제중 하나이며, 기존 번역에 대한 평가와 오역 점검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문학을 번역할 때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정형 시가문학 즉, 하이쿠(俳句) 등 단시형 문학의 경우에, 5·7·5의 음수율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연구 논문을 일본어로 쓰는 경우는 일본어학 분야(50% 점유)와 일본고전문학 분야에 특히 많은데, 부분적인 이유는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일본연구의 일반화와 독자성을 늦추는 결과가 되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되도록 한국어로 논문을 써야 한다고 본다. 미국이나 중국에서 과연 일본어로 쓰는 일본연구 논문이 얼마나 되는지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로 인식하여 학문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에 대해 생각해볼 일이다. 한국어로 논문을 쓸 경우 일본어의 표기법, 특히 문학 작품명 등의 한글 번역 표기가 제각각인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두음 표기시 원음의 구별이 안 되고 장단음을 구별하지 않는 등, 오래전에 제정하여 실정에 맞지 않는 현행 교과부 교과서 편수자료의 '일본어가나의 한글표기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 학회와 우리 전공자들이 먼저 협의하여 유관 기관에 대해 표기법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일본문학 논문은 작품론이 중심으로, 앞으로는 각 공통 주제별 통시적 또는 공시적 연구의 필요성이 있고, 한일문학의 관련양상이나 비교연구의 계속 추구와 학제적 연구에도 착안해야 하겠다. 일본 전후문학의 연구는 점차 증가 추세이나 근현대 시가문학과 희곡의 연구는 여전히 적다. 또한, 대중문학 연구도 본격 착수해야 한다고 본다.

국내의 일본문학 연구에 독자적인 발전을 꾀하는 한편, 국제적인 학술교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일본문학 연구가, 감성에 직접 호소하며 인간 이해의 기본인 문학이라는 효과적인 소재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등 타분야에서 생길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고, 한일 상호이해를 심화시키며 선린우호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2. 2012년 한국의 일본근현대문학 연구 현황

우선, 2012년에 조사한 한국의 일본근현대문학 연구의 현황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 일본문학 연구 관련 학술지 총 18개(등재지 16개, 등재후보지 2개)에 7년간(2005~2011년) 게재된 논문을 조사한 결과, 아래 <표 VI-1>과 <표 V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근현대문학 연구자(논문 집필자)수는 총 493명(한국인 439명, 일본인 외 54명)으로, 게재 논문은 총 1,614편(한국인 1,502편, 일본인 외 112편)이다.

〈표 VI-1〉 일본근현대문학 논문 편수 연도별 통계 (2005~2011)

연도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논문 합계
논문수	228	229	237	231	226	226	237	1,614 편

위 <표 VI-1>에서, 연도별로 보면 연평균 231편 계재로 대개 비슷한 수치인데, 2007년과 2011년에 계재 논문이 약간 더 많은 편이다.

〈표 VI-2〉 내외국인별 논문 통계 (2005~2011)

내/외국인수	논문 편수
한국인 / 439명	1,502
일본인(외) / 54명	112
총 493명	1,614

위 <표 VI-2>를 보면 7년간 493명이 평균 각 3.3편의 논문을 집필, 계재한 셈이다.

* 7년간 논문 다수 집필자 통계는 아래와 같다.⁶⁵⁾

29편(연 평균 4편) 집필자 1명(일본인)

21편(연 평균 3편) 집필자 1명(한국인)

17~14편(연 평균 2편 이상) 집필자 7명

13~ 7편(연 평균 1편 이상) 집필자 60명 (외국인 2명 포함) 등,

이를 종합하면, 일본근현대문학 논문을 매년 1편 이상 집필한 연구자는 총 69명으로, 이 69명이 한국의 일본근현대문학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구, 지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1. 학술지별 계재 논문수/ 연도별 통계 (2005~2011년)

총 18개의 일본문학 관련 학회 및 대학교 연구소 학술지에 7년 동안(2005~2011년) 계재한 연구자 총 493명의 일본근현대문학 관련 논문 1,614편의 학술지별 연도별 통계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1개 학회, 7개 연구소 학술지 = 총 18 개

연구자 = 총 493 명 (한국인 1인당/ 3.4 편, 일본인 1인당/ 2.1 편,

내외국인 포함, 1인당/ 3.3 편)

논 문 = 총 1,614 편 (7년간, 연 평균: 231 편)

학회지 : 1,305 편 (연 평균 186 편)

연구소 : 309 편 (연 평균 44 편)

65) 공저자는 주저자 편수에 포함. 이하 동일.

-주요 9개 학회 (연구재단등재) 학술지 논문 : 1,291 편 (1개 학회 평균/ 약 143편, 연 평균/ 184편)

-주요 4개 연구소 (연구재단등재) 학술지 논문 : 270 편 (1개 연구소 평균/ 약 68편, 연 평균/ 39편)

이 통계를 통해, 연구소보다 학회지에 4배 이상의 논문이 게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주요 학회·연구소 학술지별 일본근현대문학 연구 논문수

학회 = 『일어일문학연구』(한국일어일문학회) : 218 편

『일본학보』(한국일본학회) : 194 편

『일본어문학』(일본어문학회) : 179 편

『일본문화연구』(동아시아일본학회) : 168 편

『일본어문학』(한국일본어문학회) : 125 편

『일본문화학보』(한국일본문화학회) : 117 편

『일어일문학』(대한일어일문학회) : 113 편

『일본언어문화』(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 82 편

『일본근대학연구』(한국일본근대학회) : 67 편 등.

연구소 = 『일본학연구』(단국대 일본연구소) : 83 편

『일본연구』(한국외대 일본연구소) : 78 편

『일본연구』(중앙대 일본연구소) : 56 편

『일본연구』(고려대 일본연구센터) : 53 편 등.

<표 VI-3> 일본근현대문학 논문 게재 <학술지별/ 연도별 통계> (2005~2011)

학회 / 연구소		등재여부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학회	일어일문학연구	등재	33	32	28	38	31	29	27	218
학회	일본학보	등재	28	39	24	40	25	16	22	194
학회	일본어문학	등재	29	36	27	19	23	21	24	179
학회	일본문화연구	등재	34	15	23	20	27	29	20	168
학회	(한국) 일본어문학	등재	22	20	16	6	21	27	13	125
학회	일본문화학보	등재	14	21	21	21	16	9	15	117
학회	(대한) 일어일문학	등재	14	11	23	16	13	20	16	113
학회	일본언어문화	등재	10	16	9	7	7	13	20	82
학회	일본근대학연구	등재	7	13	10	8	8	8	13	67
학회	세계문화비교연구	등재	4	2	6	1	5	3	7	28
학회	비교문학	등재	5	2	2	1	1	2	1	14
연도	(단대) 일본학연구	등재	6	4	12	14	17	11	19	83
연도	(외대) 일본연구	등재	6	9	12	16	16	11	8	78
연도	(중대) 일본연구	등재	9	2	3	12	7	11	12	56
연도	(고대) 일본연구	등재	2	6	17	5	5	8	10	53
연도	(외대) 외국문학연구	등재	4	1	4	4	2	4	4	23
연도	(동국대) 일본학	등재후보	0	0	0	3	2	1	3	9
연도	(한림대) 한림일본학	등재후보	0	0	0	0	1	3	3	7
합계			227	229	237	231	227	226	237	1,614

* 한국일본근현대문학회, 『일본근현대문학-연구와 비평-』 제4~6호(2005~2009년): 논문 합계 40편 별도

위 통계 <표 VI-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 일본근현대문학 연구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학술지는 한국일어일문학회의 『일어일문학연구』로, 지난 7년간 218편(연 평균 31편/ 연 4회 발간, 매호 평균 8편)을 게재하였다. 그 다음이 『일본학보』(194편), 『일본어문학』(179편), 『일본문화연구』(168편) 순이다.

2.2. 일본근현대문학 <작가별> 연구 통계

게재 논문의 연구 대상 일본인 작가 수는 총 184명으로 이들 관련 논문은 합계 1,266편이고, 한국인과 재일 작가(일본어소설), 비교 대상 작가와 서양인 등 60여명 관련 논문이 160여편이며, 나머지는 기타 주제 관련 논문 등이다. 일본 작가 중에서 1.5편⁶⁶⁾ 이상 게재 논문의 연구대상이 된 93명의 작가를 논문 편수 순으로 배열하면 다음 <표 VI-4>와 같다.

<표 VI-4> 일본근현대문학 <작가별> 연구 논문 통계 (2005~2011)

논문 10편이상 작가 30명: 총 973편				논문 3~9편 작가 33명: 총 153편		논문 1.5~2편 작가 30명: 총 57편	
1. 芥川龍之介	131.5	11. 三島由紀夫	30.5	31. 司馬遼太郎	9	64. 坪内逍遙	2
2. 夏目漱石	112	12. 宮澤賢治	28	中野重治	8.5	与謝野晶子	2
3. 大江健三郎	58.6	13. 萩原朔太郎	27.5	堀辰雄	8	幸田露伴	2
4. 川端康成	57	14. 遠藤周作	26	閉高健	7.3	室生犀星	2
5. 村上春樹	53.5	15. 有島武郎	24	小林秀雄	7	内田百閒	2
6. 太宰治	49.8	16. 井伏鱒二	20	安倍能成	7	木下尚江	2
7. 島崎藤村	49.3	17. 森鷗外	19	内村鑑三	6	高見順	2
8. 谷崎潤一郎	48.8	18. 横光利一	18	坂口安吾	6	71. 小島信夫	2
9. 志賀直哉	40	19. 田村俊子	16.5	金子光晴	5.5	内田魯庵	2
10. 北村透谷	31	20. 三好達治	14	田山花袋	5.5	小杉未醒	2
		21. 石川啄木	13.3	41. 大岡昇平	5	古山高麗雄	2
		22. 宮本百合子	13	永井荷風	5	安岡章太郎	2
		23. 安部公房	13	吉本ばなな	5	巖谷小波	2
		24. 佐多稻子	12.5	葛西善藏	4.5	日野啓三	2
		25. 高村光太郎	12	梶井基次郎	4.5	宇野千代	2
		26. 楠口一葉	12	国木田独歩	4	江国香織	2
		27. 林美美子	10.5	柳宗悦	4	田宮虎彦	2
		27. 北原白秋	10.5	泉鏡花	4	81. 織田作之助	2
		27. 田中英光	10.5	村上龍	4	淺川巧	2
		30. 正岡子規	9.5	徳富蘆花	3.5	湯淺克衛	2
				51. 伊藤整	3.5	西脇順三郎	2
				岩野泡鳴	3.3	小林勝	2
				尾崎紅葉	3	夢野久作	2
				森田草平	3	宮本輝	1.5
				小林多喜二	3	平塚らいてう	1.5
				中島敦	3	俵万智	1.5
				中原中也	3	梶山季之	1.5
				八木重吉	3	鮎川信夫	1.5
				江戸川亂歩	3	廬川白村	1.5
				桐山麗	3	93. 槙本楠郎	1.5
				61. 武者小路実篤	2.5		
				三木露風	2.5		
				三浦綾子	2.5		

* 소수점 아래는 복수의 작가 관련 논문일 경우에 작가수로 나눈 수치임.

66) 복수의 작가 관련 논문일 경우 작가수로 나눈 수치임. 이하 동일.

상위 10명(각 31편 이상)의 작가 관련 논문이 총 633 편으로 전체 논문수의 약 40%를 차지한다. 순위는 아쿠타가와 류우노스케 관련 논문이 132편으로 가장 많고, 두 번째가 나츠메 소오세키 112편으로 100 편 이상 작가가 2명이다. 2005년 조사에서는 소오세키 관련 논문이 가장 많았는데 문하생 아쿠타가와에게 1위 자리를 내주고 2위로 물러나게 된 셈이다. 그 다음 3위부터가 오오에 켄자부로, 카와바타 야스나리, 무라카미 하루키, 다자이 오사무 순으로 각 59~50편이다.

카와바타와 다자이는 2005년 조사와 비슷한 순위인데, 하루키 관련 논문이 인기도를 반영하듯 증대하였고, 오오에에 대한 연구가 노벨문학상 수상(1994년)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 시마자키 토오송(49편) 순위는 이전과 비슷하다고 보며, 타니자키 준이치로(49편)가 토오송 바로 다음 순위인 8위로 뛰어오른 것은 의외인데, 타니자키 전공 교수가 집중적으로 후진을 배출하고 있는데 연유하고 있다고 본다. 9위는 시가 나오야이며, 기타무라 토오코쿠가 10위(31편)로 급부상한 것은 토오코쿠 전공 교수(일본인) 1인이 지난 7년간 29편(연 평균 4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였기 때문이다.

연구 논문 편수 11~20위(관련논문 30~14편) 작가순은 미시마 유키오, 미야자와 켄지, 하기와라 사쿠타로, 엔도오 슈우사쿠, 아리시마 타케오, 이부세 마스지, 모리 오오가이, 요코미츠 리이치, 타무라 토시코, 미요시 타츠지 순이다. 그리고, 이시카와 타쿠보로부터 미야모토 유리코, 아베 코오보, 사타 이네코, 타카무라 코오타로, 히쿠치 이치요(관련 논문 13~12편)까지가 21~26 순위이다.

장르별로는 여전히 소설 연구가 압도적이며, 시가(詩歌)문학 연구는 소수이다. 특히, 주요 작가 관련 연구(상위 10위)가 여전히 강세로 아쿠타가와, 소오세키 연구 논문(합계 235 편)이 압도적 다수고, 오오에, 하루키, 타니자키, 시가(志賀) 연구 논문의 증가 추세가 현저하며, 카와바타, 다자이, 토오송 연구는 꾸준한 편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토오송(8위)과 켄지(12위), 그리고 사쿠타로(13위) · 미요시(20위) · 타쿠보(21위) 등의 시가문학 관련 연구가 8~21위에 들어있는 것은 전공 연구자들의 노력의 결과로서 연구의 다변화를 추구하는 일이며 지속적으로 시가문학 연구가 확산되기를 기대해볼만하다.

지난 7년간 10편 이상의 논문 주제 관련 작가는 30명이며 논문 총수는 973편이다. 결과적으로 이 30명의 작가 관련 논문이 전체(1,614 편)의 60%(위 <표 VI-4>의 10위 까지 약 40%, 11~30위 까지 약 20%)를 차지하는 인기 작가라고 할 수 있다. 9~3편 작가는 33명(논문 총 153편), 2~1.5편 작가가 30 명(논문 총 57편) 등으로, 1.5편 이상 논문 관련 작가는 계 93 명이다. 그리고 위 <표 VI-4>에는 넣지 않았는데, 1편의 논문 관련 작가는 73 명, 1편 미만의 논문 관련 작자가 18명이다. 결론적으로, 연구 대상 일본인 작가수는 모두 184명(논문 총 1,266편)으로 웬만한 일본의 근현대 작가가 거의 다 망라되어 한국에서 연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위 작가별 논문 통계표를 보면서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는 작가 시인 그룹에 대해 덧붙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 근대문학사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이 많은 모리 오오가이(森鷗外) 관련 논문이 19편(19위)이라는 것은 미진한 편이므로 더 연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타야마 카타이(5.5편)와 나가이 카후(5), 이즈미 교오카(4), 쿠니키다 독보(4), 토쿠토미 로카(3.5), 츠보우치 쇼오요(2), 오자키 코오요(2), 코오다 로향(2), 히라츠카 라이쵸(1.5편) 등 문학사에서 각 문예사조상 어느 정도 비중 있는 작가들에 대한 연구도 저조한 편이어서 전공자들의 관심이 더 필요한 분야라고 본다.

또 한편으로, 한국의 독자들에게 인기 있는 현대작가 요시모토 바나나(5편)가 연구 대상 논문 편수

면에서 하루카에 비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도 음미해볼만한 점인데, 여류작가 작품의 단순함 때문인지 예상했던 것보다는 연구가 적은 편이라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증감 폭을 눈여겨볼 부분이다. 무라카미 류(4편)가 관심을 그다지 끌지 못하는 것도 문체와 작품의 어려움 때문일지 모르겠다. 그리고 시가문학에서는 요사노 아키코(2편), 나카하라 츄우야(3), 미키 로후(2.5), 무로오 사이세이(2), 니시와키 준자부로(2) 등도 연구가 더 진척되어야 할 분야라고 하겠다. 현대 하이쿠(俳句)나 단가(短歌)에 대한 연구와 미야모토 테루나 타니카와 슌타로 같은 현대 작가 시인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롭게 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2.3. 일본근현대문학 <주제/ 소재 방법별> 연구 통계

'일본근현대문학 연구 주제/ 소재 방법별 논문 통계'(아래 <표 IV-5>)를 조사해보니, 주제별로는 <사회>, <고뇌>, <남녀> 주제가 다수이며, <종교(구원)>, <가족> 주제가 그 다음 순위이다. 소재면에서는 <표현>, 방법적으로는 <비교>론이 다수이고, 소재면에서 <재일작가/일본어작품>론이 다음으로 많은 편이며, <총론>과 <한국(인)상>이 뒤를 따르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사회>(300편 이상)와 <표현>, <고뇌>(각 200편 이상) 관련 논문이 844편으로 전체의 과반수(52%)를 차지한다. 이어서 <비교>, <남녀>, <재일작가/일본어작품>, <총론>(각 100편 이상) 등 관련 논문이 550편(34%)으로, 이상의 합계는 1,394편이며 전체의 86%를 점하고 있다.

<표 VI-5> 일본근현대문학 연구 <주제/ 소재 방법별> 논문 통계 (2005~2011)

주 제	주 제 별							소재/ 방법별							합 계
	사회	고뇌	남녀	종교(구원)	가족	자연	문화	표현	비교	재일작가/일본어작품	총론	한국(인)상	기타		
논문 편수	333	240	148	62	33	14	7	271	170	126	106	63	41	1,614	

* 분류기준, 범위에 따라 통계 수치는 달라질 수 있음.

전반적으로 연구 논문 편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사회> 관련 주제 연구가 333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표현>관련 연구가 271편으로 많은 편인데 이는 일본문학의 특징을 '표현' 면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한일 비교문학 관련 논문과 재일작가·일본어작품론, 한국(인)상 등에 관한 연구가 많은 것은 한국의 일본연구라는 관점에서 볼 때 당연한 일이며, 이와 함께 기독교문학과 같은 종교(구원) 주제 연구 증가 등은 한국 연구자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는 2005년 조사 시의 증가 예상 전망과 일치한다. 또한, 구체적인 연구 주제가 다양화되었으며 연구 내용의 분화가 이루어졌다. 개별 연구가 증대되는 한편으로, 재일한국인문학연구, 기독교문학연구, 식민지시기 일본교과서 연구 등의 공동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 밖에, '주제별 기획특집'을 구성한 한국일본근대문학회 학술지 『일본근대문학-연구와 비평-』(제4~6호, 2005~2009년, 논문 40편 게재)과 동 학회 편 <기획총서I> 『일본근현대문학 속의 연애』(2008년, 논문 15편 수록)를 비롯하여, 한국일본기독교문학회 편 『일본문학 속의 기독교』 제3~8권 (2005~2011년, 논문 66편 게재, 주로 아쿠타가와와 엔도오, 다자이 관련 논문과 토오송, 우치무라, 토오코쿠,

미우라 관련 논문 등 포함) 등은 위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등재 학술지 이외의 논문을 포함시키면 주제·소재 방법별 논문 통계 수치가 더욱 늘어나는 것은 자명하다.

2005년 조사에 비해, 연구자와 연구 논문수가 대폭적으로 증가한 것은, 자연 증가분을 포함하여 연구 활성화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많은 부분, 학술지 등재제도의 도입과 각 대학의 교원 업적 평가(채용, 재임용, 승진, 인센티브 등)의 기준이 논문 실적 위주의 정량 평가가 기본이기 때문에 논문의 양산 체제에 돌입하게 된 결과라고 하겠다.

2.4. 단행본 연구저술 조사

일본근현대문학 관련 단행본 저술 출판은 7년간 총 129권(연 평균 18권)인데, 이중에서 일본의 연구자 저서의 역서(23권)와 소개·감상·입문서(27권), 총론·문학사(25권) 등을 제하면 연구서는 54권이며, 이중에도 공저와 편저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표 VI-6〉 일본근현대문학 관련 〈단행본 전체〉 통계 (2005~2011)

분류	연구	소개·감상	총론·문학사	연구서 역서	합계
단행본 수	54	27	25	23	129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서 기준.

위 〈표 VI-6〉의 통계에는, 역서 23권 외에 공저 및 편저가 28권 포함되어 있어, 단독 저서는 78권이다.

주요 단행본을 주제별, 작가별로 재분류하면 다음 〈표 VI-7〉과 같다.

〈표 VI-7〉 일본근현대문학 관련 〈단행본 주제/ 작가별〉 통계 (2005~2011)

주제 작가	주제별							작가별						
	재일작품	종교 (기독교)	일본어작품/식민지문학론	여성	연애	번역	기타	春樹	川端	芥川	漱石	安部	藤村	小林 多喜二
단행본 수	7 (1) (편5)	6 (편6)	5 (1) (편2)	5 (2)	4 (1) (편1)	2	2	7 (5)	4	3	3 (1)	2	2	2 (1)

*()내의 숫자는 역서 권수, (편)내의 숫자는 공저·편자의 권수.

주제별 단행본의 분포는 논문의 주제별 편수 통계의 일부분과 대체적으로 유사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재일작가작품론’이나 ‘기독교문학론’, ‘일본어작품/식민지문학론’, ‘여성’, ‘연애’ 등으로 축적된 결과를 출판하였다. 작가별 단행본 분포 면에서도 관련 논문 편수와 대개 유사한 비율인데, 카와바타(4권)와 아쿠타가와(3권) 관련 단독 연구서가 많은 편이며, 그 다음으로 소오세키와 아베, 토오송 연구 단독 저서가 각2권이며, 하루키 관련 단행본은 주로 일본의 번역서 5권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중에

서 아베 코오보(安部公房, 2권)와 코바야시 타기지(小林多喜二, 2권/역서 1권 포함) 관련 연구서가 복수로 출간된 것은 논문 편수 통계 순위보다 높은 비율이다.

이밖에, 주제별로는 ‘사소설’ ‘아동’ ‘모더니즘’ ‘문체’ 기타 관련 등의 출판이 있고, 작가론으로는 오오가이(森鷗外)와 이치요(樋口一葉), 시가(志賀直哉), 타카무라(高村光太郎), 타니자키(谷崎潤一郎), 나카노(中野重治), 다자이(太宰治), 엔도오(遠藤周作), 사타(佐多稻子), 타나카(田中英光) 관련 등의 저서가 각 1권이다. 일본의 단행본 연구서의 번역 23권은 주로 총론·문학사(11권), 하루키론(5권), 입문서 등이다.

주제별 단행본에는 편저(공저 포함)가 14권을 차지하고 있어, 하나의 주제에 대한 다수의 공동연구를 모아 출판한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명의 작가 연구 단행본이 총 26권으로 출판이 증가한 것은 각 작가 전공 연구자의 활발한 저술과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재정리하여 발표한 논문을 모아 단행본으로 출판한 경우 등이다. 한편으로 이렇게 작가 연구 단행본 간행이 증가한 것은 학위논문의 자비출판 등이 용이해진 데 따른 부수적인 효과라고도 볼 수 있다.

2.5. 작품 번역서 조사

일본근현대문학 작품의 번역 조사 통계는 다종다양해서 모두 다루기 어렵고 고전 번역과 달리, ‘라이트노블’, ‘로만스’, ‘대중·추리소설’ 등 범위가 광범위하여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 번역을 예로 들어보기로 한다.

무라카미 하루키 관련 연구논문이 지난 7년간 54편(연 평균 7.7편)이 발표된 것은 하루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작품 번역이 계속적으로 늘어난 것과 비례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하루키 작품 번역은, 1988부터 2004년까지 17년간 73권(연 평균 4.3권)이 간행되었고, 2005부터 2011년까지 7년 동안에는 42권(연 평균 6권)이 간행되어 동일 작품 중복번역 출판 포함 총 115권(연 평균 4.8권)이 출간되었다. 한 작가의 작품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번역 간행된 유례는 이제까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외국문학 번역 중에서 일본 현대작가 하루키 번역의 편중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국내에 하루키 고정 독자가 확보되어 있다는 반증이다.

한편, 한국 문학 작품의 일본 수출의 미미한 실적에 비해 문학 번역 부문에서도 무역역조가 심화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반문이 있을 수 있다. 한국 소설의 일본어 번역 예로,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母をお願い)』(集英社, 2011) 등을 들 수 있다. 소위 ‘한류’와 더불어 한국문학의 일본어번역은 서서히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하루키처럼 일본에서 한국 작가의 작품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경우는 아직 없는 형편이다. 이는 작품에 대한 흥미와 관심 방향과 관련되며, 일찍이 근대화 초기 이래로 일본인들이 서양 문화와 문학에 관심이 쏠려있다는 것과 근대 한일관계의 역사적인 맥락에서 그 연유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는 이웃나라에 보다 긍정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일본 근현대문학 연구의 과제와 전망

앞서 기술한 ‘2005년 연구조사의 과제와 전망’ 부분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2012년 연구조사 결과를 보아도 여전히 유효한 경우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장르별로는 전과 별다름 없이 소설 연구가 압도적이어서 시가문학 연구가 위축된 감이 있다. 연구의 다변화를 위하여 시가문학과 희곡관련 연구가 보다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현대문학과 대중문학에도 연구자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이다.

작가별 논문 통계표를 보면 일본 근대문학사상 중요도에 따라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는 작가로 모리 오오가이(森鷗外)를 비롯하여, 카타이와 카후, 쿄오카, 쇼오요, 코오요 등이 있다. 그리고 시가문학에서는 아키코, 츄우야, 사이세이 등과 현대 하이쿠·단가도 더 연구할만한 분야라고 본다. 앞으로 현대 작가 시인들 예컨대 미야모토 테루나 타니카와 슌타로 등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단행본 저술도 이런 작가 시인들 관련 연구가 축적되고 편중 현상이 해소되어 다양한 작가론과 주제별 연구서가 출판되어야 할 것이다.

단행본 연구서의 간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연구자 확충과 연구 실적의 축적으로 인한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하겠다. 학위논문의 출판이 용이해졌다고 해서 일본의 대학에 제출한 학위논문을 그대로 한국에서 안일하게 출판한다든지, 내용과 체재의 별 수정 보완 없이 서둘러 출판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문장 표현, 내용의 질적 심화의 확보가 관건일 터이다. 이제 한국의 일본문학 연구의 독자적인 방향을 모색하여 창의적인 내용을 담은 본격적인 연구서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작품 번역 분야에서는 이미 한국연구재단과 대산문화재단 등의 고전 명작 번역 사업에 진척이 있으며, 각 출판사의 명작 번역시리즈(지식을만드는지식(지만지))가 간행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런데, 일본의 대표적인 고전 및 명작을 전문 연구자가 적절한 주석과 해설을 완비하여 번역하는 것은 지속적인 과제이다. 또한, 문학 작품명 번역의 일관성과 통일이 필요하며, 기존의 번역 평가와 오역 점검도 여전히 남은 과제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논문은 일본어보다 되도록 한국어로 쓰고, 일본어나 영어로 요지문과 주제어(키워드)를 달면 해외의 전공자들에게도 통용될 것이다. 또한, 현행 ‘일본어가나의 한글표기법’의 합리적인 개정을 위해 관련 학회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논문 과다 생산은 현실적으로 평가제도에도 문제가 있는데, 연구 내용의 심화와 주제 소재의 개발과 다변화 추구, 질적 향상이 요구된다. 그러나, 각 분야의 연구자 축적과 학회의 활성화는 고무적인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여전히 일어일문학 일본학 관련 유사 학회, 연구소 학술지의 중복 난립의 문제 해결은 당면 과제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2012년 8월 17일 한국일어일문학회가 우선 일어일문학 관련 12개 학회에 송부한 e-메일 서신 「학술지 연계 발간을 위한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며」에 대한 각 관련 학회의 긍정적인 답신과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시점이다.

4. 맷 음 말

2012년의 일본근현대문학 연구 조사를 통해 연구자와 연구논문이 격증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11개 학회의 등재학술지와 7개 대학교 연구소의 등재학술지(등재후보 2개 포함) 총 18개 학술지를 조사

한 결과, 지난 7년(2005~2011) 동안 일본근현대문학 연구자수는 2005년 조사 대비 320 여명에서 490 여명으로 170 여명(약 50%) 증가했으며, 논문도 580 여편(조사 방식에 따라 수치 다를 수 있음)에서 1,614 여편으로 약 1,000 여편 증가하였다. 7년간 매년 평균 230 여편씩(1인 평균 3.3편) 논문이 게재된 셈이다. 일본근현대문학 연구가 가장 활발한 학술지는 『일어일문학연구』(한국일어일문학회)이고, 매년 1편 이상 논문을 집필한 69명이 한국의 일본근현대문학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작가별 연구 논문 편수는 상위 10위 이내의 주요 작가 연구가 강세로, 아쿠타가와와 소오세키 연구 논문이 절대 다수이며, 오오에, 하루카 등 현대작가 연구 논문의 증가 추세가 현저하다. 연구 대상 일본인 작가수는 총 184명(논문 총 1,266편)으로 일본의 근현대 작가가 거의 다 망라되어 한국에서 연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별로는 ‘사회’ 관련 주제가 가장 많고 이어서 ‘고뇌’와 ‘남녀’, 그리고 ‘종교’, ‘가족’ 순이다. 소재 방법면에서는 ‘표현’ 관련 논문이 가장 많다. 또한, ‘비교’ ‘재일작가/일본어작품’ ‘한국(인)상’ 관련 연구 등이 눈에 띠게 증가한 것은, 2005년에 예상했던 대로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근현대문학 관련 단행본 저술 출판은 7년간 총 129권(연 평균 18권)인데, 이중에서 연구서는 54 권이며, 소개·감상·입문서(27권)와 총론·문학사(25권), 그리고 일본의 연구자 저서의 역서(23권) 등이다. 연구서 중에도 공저와 편저 등이 여럿 포함되어 있다. 재일작가작품론과 기독교문학론 등 주제별 단행본에는 다수의 공동 연구를 모은 편저·공저(14권)가 많은 편이다. 카와바타와 아쿠타가와 등 17명의 작가 연구 단행본이 26권으로 증가한 것은 각 작가 전공 연구자의 활발한 저술과 박사학위 논문의 출판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통계조사를 참고로 하여, 앞으로 한국의 일본근현대문학에 대한 연구 방향을 전망하고 연구 대상 작가와 주제, 소재, 방법 면에서 새로움을 추구하여, 국내의 일본연구의 수준을 심화 발전시키고 정립시켜나가야 하겠다.

현재의 상황 아래서, 연구자의 증가와 업적 평가에 따른 연구의 증가는 학회 연구 활동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단순히 실적에 연연하여 논문을 양산하는 현상은 재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반성의 기운이 무르익어 연구자 모두가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일본연구 각 분야 중에서 일어일문학 관련 연구자와 논문의 과잉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동안 일본연구의 저변 확대에 기여한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어느 시점에서 자연히 조절 가능이 작동되리라고 본다. 학문 연구가 오로지 지(知)의 탐구라는 자체 목적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좋아서 문학을 읽고 연구하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긍정 위에 대내외의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일어일문학 일본학 연구 관련 학회가 서로 내실 있게 통합을 지향하며 우선 학술지의 연계발간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적극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본다. 또 한편으로 국내의 문학 역사 철학 등 인문학분야 27개 학회가 참여하여 2012년 10월 26일 ‘한국인문학총연합회’(약칭, ‘인문총: H.A.K.)가 출범하였다. 이러한 국내 인문학 전체의 흐름에 발맞추어, 연구의 정량 평가의 굴레에서 벗어나 질적인 심화를 추구하는 학문 연구 동기의 자발성에 따라, 진정 스스로 만족스런 좋은 연구를 도출하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연구를 생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주제와 소재 발굴, 다양한 개별 창

의·공동 연구 추진 등으로 향후의 실적이 기대되며, 타 학문분야와 교류 융합하는 학제적 연구와 한일, 동아시아 상호, 동서양 사이의 비교 연구의 활성화, 그리고 일본 등 외국의 연구자, 학회와 적극적 학술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한일 관계가 때로 정치 경제 사회면에서 일시적 부분적으로 침체기가 있을지라도 상호협력의 기반이 축적되어 있고 이웃나라와 교류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회복될 것이다. 대내 외적 환경이 변화하더라도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때나 상식이며, 아무리 한일 간의 현안에 따라 크고 작은 마찰이 있더라도 상호 간의 문학을 연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문학은 우리 삶의 표현이며 희로애락의 노래는 인간의 삶 그 자체이기도 하다. 리일전쟁 때조차 일본인들은 한쪽에서 러시아어를 배우고 투르게네프나 토스토에프스키 같은 러시아문학을 읽고 연구했다는 점을 상기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한국문학을 읽는 독자와 연구자가 일본에서도 더욱 증가하기를 기대한다는 점이다. 인문학의 중심인 언어 문학이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효용성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마음·정신의 이해를 지향한다는 것은 어느 시대나 참이며 강점이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 이한섭, 「한국 일어일문학 연구문헌 검색시스템에 대하여」, 『일어일문학연구』(25), 한국일어일문학회, 1994.4.
 권혁건, 「한국의 일본문학연구 현상」, 『日本學年報』(6), 일본문화연구회, 1994.12.
 최재철, 「한국에 있어서의 외국문학 연구—특히 일본문학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학과 생활문화』, 경기대, 1996. 9.
 한국일어일문학회, 『한국의 일본어교육 실태—일본어교육기관조사 1998-1999年』, 1999.2.
 최재철, 「일본문학 번역과 표기의 제문제」, 『일어일문학연구』(34), 한국일어일문학회, 1999.6.
 김종덕, 「한국의 일본문학연구의 현황과 전망」, 『日語日文學研究』(45), 한국일어일문학회, 2003. 5.
 유옥희 (외), 기획테마 「한국에서의 일본문학연구 성과와 과제 조명」, 『2004년도 학술대회 Proceeding』, 한국일본학회, 2004. 11.
 최재철, 「韓國における日本文學研究の状況と展望」, 『論究日本文學』(81), 立命館大學 日本文學會, 2005.2.
 최재철, 「한국의 일본문학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 일본학의 현황과 과제』(2005년 일본연구조사, 세종연구소 주관), 한울이카데미, 2007.
 최재철, 『일본근대문학—연구와 비평—』, 한국일본근대문학회, 2005년~2009년.
 최재철, 『일본문학 속의 기독교』, 한국일본기독교문학회 편, 2005년~2011년.
 최재철 (외), 『일본의 번역출판사업 연구 – 일본문학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번역원, 2006.12.
 최재철,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 문학과 한국—텍스트와 번역·수용」, 『일본연구』 제34호, 한국외대 일본연구소, 2007.12.

CURRENT STATE OF JAPANESE STUDIES IN KOREA

|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

(우)120-83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8-1 버티고빌딩 2~3층

사무실 : TEL 02-397-2820 | FAX : 02-397-2830

문화정보실 : TEL 02-397-2860 | FAX : 02-397-2870

URL : www.jpf.or.kr

|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

(우)461-37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51번길 20

TEL : 031-750-7500 | FAX : 031-754-0100

URL : <http://www.sejong.org/index.php>